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712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5월 20일 (음력 4월 16일) 월요일

‘전남서 먼저 살아보기’ 농촌형 프로그램 인기

전남도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농촌형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농촌형 프로그램 운영 한 달째인 지난 15일까지 농협 청년농부사관학교 교육생 등 3개 단체를 포함해 총 428명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일반 신청자는 286명이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37%, 영남권 등은 43%, 나머지는 광주지역 참가자로 집계됐다.

또 농촌형 프로그램 5일에서 60일까지 기간 중 1개월 이상 체류자가 26%를 보이는 등 10일 이상 장기 체류자의 비율도 높

수도권 37% · 영남권 등지 43%...전국서 신청 쇄도

귀농 · 귀촌인에게 먼저 준비할 기회제공 효과 입증

었다.

5월 들어 하루 평균 80여 명이 26개 마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귀농·귀촌인에게 먼저 준비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도입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 주는 셈이다.

가장 참가자가 많은 신안 청푸농촌교육농장에는 상반기에 46명이 신청했다. 장기 신청자가 많은 장성 팽백송마을은 14명

의 신청자 모두가 60일을 머무르며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이처럼 인기가 좋은 운영마을의 경우 참가 희망자의 신청이 많아 4월 말에 접수가 조기 종료되기도 했다.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농촌형 프로그램은 도·농 간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도시민이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상·하반기 연 2

회 운영한다.

전남지역 농어촌에서 머물며 농어촌체험, 주민 만남, 주택·농지 구입에 필요한 정보 취득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면서 체류 기간에 따른 의무점수(1일당 1점)를 이수해야 한다.

전남도는 앞으로 만족도 설문 조사, 전입 여부 조사 등을 통해 프로그램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농촌형 외에 외지 청년들이 지역에 와 환과 체험을 통해 정착 기회를 찾도록 지원하는 ‘청년행복캠프 30days’를 오는 6월부터 순천을 시작으로 5개 시군에서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김정환 기자

광주시민들, 5·18 부정·편혜 집회에도 의견한 대응

“협오 표현 · 역사 부정 처벌법 제정 필요”



5·18 민주화운동 39주년인 18일 오후 항쟁의 무대였던 광주 동구 금남공원 인근에서 자유연대·턴라이트 등 보수 성향 단체가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보수 성향 단체가 5·18 민주화운동 39주 기념일 광주 금남로에서 5·18 부정·편혜 집회를 열었지만 광주시민들은 의견한 대응했다.

19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남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광주 동구 금남공원 일대에서 보수 성향 단체(경찰 추산 참가자 1000여 명)가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 뒤 총장파출소와 광주전변을 따라 행진했다. 금남공원은 5·18 추모 행사와 범국민대회가 열린 금남로 1가와 500여m가량 떨어진 곳이다.

항쟁 중심지인 금남로에서 39년만에 처음(5월18일 당일) 열린 5·18 부정·편혜 집회이기도 하다.

집회 참가자들은 적법·공정한 5·18 유공자 선정을 부정했다. 현행법상 공개할 수

없는 유공자 명단과 공적 조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행진 과정에 지역감정을 조장할 수 있는 발언을 일삼거나 시민들에게 욕설·비속어를 퍼붓기도 했다.

이를 지켜본 광주시민 대부분은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등 답답하고 의견한 대응했다.

지난 17일 5·18 발상지인 전남대학교 후문에서도 보수 성향 단체의 집회가 열렸지만 광주시민들은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것도 오월열사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 아니겠느냐”며 동의하지 않았다.

한 시민은 “보수 성향 단체가 5·18 역사 부정과 함께 희생자 이름을 받치고 상처를 덧냈지만 광주시민들은 금남로에서 주먹밥을 나누는 등 오히려 차분하게 대응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도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무대응했던 점이 충동이 없었던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협오 표현과 역사 왜곡을 처벌키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재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공동저자는 “국가 행정을 불신하고, 5·18에 대한 법적·국제적 평가를 모두 무시한 셈”이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역사를 부정하고 혐오 발언을 일삼는 것을 뿌리뽑아야 한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봉우 기자

FINA 기술위, 세계수영대회 준비상황 점검 차 광주 방문

국제수영연맹(FINA) 기술위원단이 광주수영대회 종목별 경기운영과 의무·도핑 등 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했다.

19일 광주세계수영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FINA 코넬 마르퀘스쿠 사무총장을 비롯해 와이키푸울 시설위원장, 캐럴 잘레스키 경영 위원장 등 대표단과 종목별 기술위원단 30여 명이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광주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FINA는 이번 방문에서 대회 경기운영과 의무·도핑 대책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집중 확인한다.

지난 17일 여수 민덕동 오픈워터수영 실무회의로 시작한 이번 점검은 24일까지 진행하며, FINA 기술위원단은 광주와 여수의 종목별 경기장을 방문한다.

특히 FINA 사무총장, 시설위원장 외에 종목별 기술위원단 30여 명이 참여해 경영, 이티스타수영, 수구 등 6개 공식종목에 대해 종목별 기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서은홍 기자



5공 공안검사의 시각으로 봤...

홍준표



문재인 정부의 독재를 끝장 내야...

황교안



박근혜 끝내겠는데...

홍준표

◆ 본보 창간 12주년

기념행사 5월 31일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백백이 있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 MBC 월화드라마 특별본로감독관 조장풍 중 >

한국노총 공공연맹이 공공노동자의

든든한 백백이 되어 드립니다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공공연맹은 이런 일을 합니다.

- 공공기관 노조를 대표해 정부부처와의 노정협의를 진행합니다. ★★★★★
- ※ 2019년 노정협의 주요 안건: 노동이사제 도입, 경영평가제도 개선, 근로시간단축, 임금피크제 폐기 등
- 지방정부와의 노사정협의를 구축을 위해 노력합니다.
- ※ 서울, 대구 등 노사정회의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공공부문 노조들의 현안해결을 위한 대정부 투쟁을 지원합니다.
- 2018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노동조합 지방정부 건설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공연맹은 5만 명의 공공부문노동자가 함께 합니다.

- | | |
|----------|----------------------------------------------------------------------------|
| 국가공공기관노조 | 한국농어촌공사노조,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주택관리공단노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노조, 도로교통공단노조 등 30여개 |
| 지방공공기관노조 | 대구도시공사노조, 인천도시공사노조, 대구도시철도노조, 부산관광공사노조, 부산환경공단노조, 경기도시공사노조 등 50여개 |
| 공무직노조 | 경찰청주무관노조, 전국통계청노조, 농림축산식품부노조, 국토교통부공무직노조, 충북도청 공무직노조 등 20여개 |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 조직가압상담

문의 | 02-6277-2280 이메일 | fkpu00@gmail.com 홈페이지 | www.publicunion.or.kr